

화순탄광에 복합관광단지·스마트팜 들어선다

광해광업공단 '조기 폐광 경제진흥사업계획 용역' 중간보고서 탄광 주변 부지 245만㎡에 5000억원 규모 골프장·리조트 조성 카지노는 법 개정 필요해 빠져... 일부 "실패한 사업 재탕" 목소리

화순탄광의 조기 폐광으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와 화순군이 추진할 대체 산업의 밑그림이 나왔다.

3일 한국광해광업공단이 발주한 '조기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계획 수립용역'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화순탄광 폐광 대체 산업으로 탄광 주변 부지 245만 6000㎡에 복합 관광단지과 지역특화산업 시설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예상되는 총사업비는 5310억원에 달한다. 복합 관광단지는 골프장과 리조트, 정원 등을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사업비 2385억원 가운데 80%인 1922억원이 민간 자본을 조달하도록 했다.

골프장 인근에는 1506억원(민자 93%)을 들여 210개 객실 규모의 숙박시설과 컨벤션센터, 체험

시설, 상점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복합리조트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관심을 모았던 카지노는 법 개정이 필요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폐광한 갱내 수열에너지를 리조트 난방이나 수도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한다.

특히 수목원과 정원, 산책로, 승마체험장, 팻 테마파크 등을 염두에 둔 '보타닉가든'도 조성된다.

골프장, 복합리조트와 연계해 치유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사업비 675억원 중 44%인 297억원이 민간에서 투자받는다는 계획이다.

지역특화산업시설로는 의료·식품류 분야 등 화순군의 특화산업 업종을 유치할 수 있는 농공단지과 고부가가치 작물을 재배하고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스마트팜 단지 등을 조성하기로 했다. 두 단지를 조성하는 데는 민간 투자 없이 각각 429억원, 315억원이 순수 국비와 지방비로 투입된다.

화순군은 내년 말까지 민간 사업자의 투자방향서를 확보하는 동시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위한 절차 준비를 시작했다.



폐광한 화순탄광 일대에 복합 관광단지과 지역특화산업시설을 조성하자는 사업계획 수립용역 중간보고서가 나왔다. 화순탄광 일대 전경. (광주일보 자료사진)

이러한 사업 계획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이미 사업성이 없어 실패한 관광·리조트 사업을 선불리 추진했다가 예산 낭비만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계획에 화순군이 당초 강원도 정선군처럼 추진하려던 카지노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현실성이 떨어져 빠진 것도 이를 반영했다는 분석이다.

2012년 폐광지역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화순리

조트는 관광·숙박 사업을 추진하다 수익성 문제로 3차례 사업을 중단·변경한 끝에 10년 만에 어린이 테마파크로 문을 열게 된 사례를 지적한 것이다.

이에 대해 화순군 관계자는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통해 사업성을 검토할 수 있고, 정부와 협의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은 보완·조정될 수 있다"며 "폐광 대체 산업을 통해 화순군이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담양군 전입세대에

담양쌀 등 '곳간 꾸러미' 선물

담양군이 지역에 전입하는 세대에게 '대숲깎음 담양쌀' 등을 나눠준다.

이는 인구 늘리기 시책의 하나인 '담양 곳간 꾸러미 지원사업'으로 추진된다.

이달 1일부터 다른 지역에서 살다가 담양에 전입하는 세대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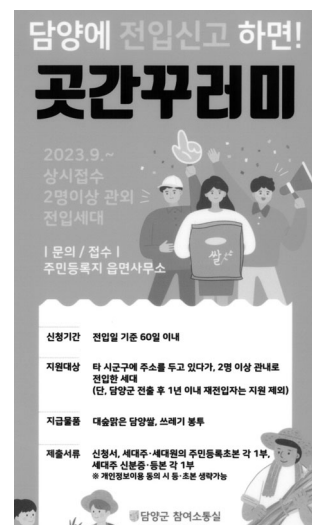
는 축하 편지와 선물을 준다.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담양군으로 전입한 2명 이상 세대가 대상이다.

'곳간꾸러미'는 담양 대표 쌀인 '대숲깎음 담양쌀'과 쓰레기봉투 등으로 구성됐다.

가구주가 주민등록상 주소가 있는 읍·면사무소에 가서 신청하면 된다.

담양군 관계자는 "낯선 환경에 새롭게 적응해야 하는 전입 세대에게 환영의 인사를 건네기 위해 곳간꾸러미 사업을 마련했다"며 "우리 지역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장성 필암서원에서 우리 가락 즐겨요

매달 셋째 주 토요일 국악 무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장성 필암서원에서 오는 11월까지 매달 셋째 주 토요일 흥겨운 우리 가락 무대가 열린다.

장성군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문화재청 '세계유산 활용 공모사업' 대상지에 선정되면서 필암서원에서 '명품 국악공연'을 열기로 했다.

올해 공연 주제는 '세계유산 필암서원, 호남의 선비'로 해서 김인후 선생을 만난다"이다.

이달부터 11월까지 매달 셋째 주 토요일 서원 앞 잔디마당에서 다양한 무대가 펼쳐진다.

오는 16일에는 TV 공연 예능 팬텀싱어3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라비덴스'의 소리꾼 고영일이 공연한다.

10월21일에는 전통 음악합주단 '선풍'이, 11월18일에는 김덕수 사물놀이패가 무대에 오른다.

공연이 열리는 주 금·토요일에는 인종이 스승인 해서 선생에게 하사한 '세 가지 선물'을 주제로, 수목화 그리기 등 가족관객을 위한 체험 행사도 마련된다.

조선 시대 대표적인 사립 교육기관인 필암서원은 지난 2019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



재됐다. 성리학자 해서 김인후(河西 金麟厚·1510~1560년) 선생을 제향(나라에서 지내는 제사)하고 있으며, 당시 학자들의 생활상과 사회·경제상 등을 연구하는데 매우 중요한 문화재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필암서원에서 펼쳐지는 명품 국악 공연과 체험 행사가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 콘텐츠로 자리 잡도록 꾸준히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

나주 혁신도시 '콜버스' 출발

요금 1000원...전남 처음 도입

승강장 71곳...6개월 시범 운행

원하는 시간과 목적지를 정할 수 있는 '나주 콜버스'가 지난 1일부터 빛가람혁신도시에서 6개월 시범 운행에 들어갔다.

나주 콜버스는 정해진 노선이나 시간표와 관계 없이 승객이 호출하면 탑승할 수 있다. 전남에서는 처음 도입됐다.

요금은 기존 버스과 같은 일반 1000원, 청소년 700원, 어린이 500원이며 2차례 환승이 가능하다. 승객이 호출했다가 1시간 안에 3회 호출을 취소하면 1시간 동안 호출이 제한되는 벌칙이 적용된다.

운행 시간은 오전 6시 30분부터 밤 10시 30분까지다.

나주 콜버스는 15인승이며 빛가람동(혁신도시) 버스 승강장 71곳을 오가며 6개월간 시범 운행한다.

나주시는 지난 31일 빛가람 전망대 주차장에서 운병태 시장과 최명수 전남도의원, 주민, 콜버스 운영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통식을 했다.

나주시는 전통 킥보드와 전기 자전거 등 대체 교통수단 이용자들의 수요를 분석하고, 승객 대기 시간을 줄이는 등 개선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달부터 6개월간 나주 빛가람혁신도시(빛가람동)에서 시범 운행하는 수요 응답형 대중교통 '나주 콜버스'. (나주시 제공)

오는 10월2일부터는 급행버스와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 노선을 전면 개편 운행한다.

윤병태 시장은 "나주 콜버스는 승객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목적지까지 빠르게 도착하는 신개념의 대중교통 서비스"라며 "도내에서 최초로 도입되는 만큼 시범 운영 기간 중 효과성을 검증해 시민 편의에 중점을 둔 대중교통의 한 축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강진군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다자녀 10세대 모집

강진군이 주택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받을 신혼부부·다자녀 가정 10세대를 모집한다.

'신혼부부·다자녀 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대상자에 선정되면 월 최대 25만원 주택 구매 대출 이자를 3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강진에서 살며 주택이 없는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정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의 대출 심사를 통과해 지난해 10월1일부터 올해 9월30일까지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사야 한다.

신혼부부는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로 혼인신고일이 대출 심사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여야 한다.

다자녀 가정은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이고 자녀 중 1명이 만 12세 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오는 10월18일까지 할 수 있다. 신청 서류를 갖춰 주소가 있는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강진군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진군 관계자는 "강진군은 지난해 10월부터 출생아에게 육아수당 월 60만원을 지원하는 등 결혼·출산·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고 있다"며 "귀농·귀촌은 주거와 일자리 문제가 가장 힘든 일이므로 이번 지원사업으로 신혼부부·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덜어질 바란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9년
1954-2023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전체이사장
 나학수 목사
(광주거주교회)

법인이사장
 김용대 목사
(영광대학교)

총장
 김경운 박사

Passion
Vision
Truth

열정
꿈
진리로 증명한다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믿음이 있는 대학 · 믿음을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백지소로 36

2024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학부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열	모집단위		모집인원	
	학과	수시	정시	
인문사회	신학과	30	5	
	한국어교육학과	1	1	
	복지상담융합학부	24	5	
사범	유아교육과	7	3	
	음악학부 <small>(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small>	21	8	
총계		83	22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학부 전형일정

수시모집
· 원서접수: 2023. 9. 11(월) ~ 15(금) · 전형일: 2023. 10. 6(금)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24. 1. 3(수) ~ 6(토) · 전형일: 2024. 1. 19(금)

“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세상의 중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그대를 기다립니다!

”